

'13월의 어느 날', 불안을 명랑으로 바꿀 미술적 상상력

카워드로 보는 名畫 이야기

불안(Anxiety)

Tell me your secret

산업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여러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여러가지 불안감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를 잘 설명하는 단어로는 '번아웃 증후군'이 있는데, 이는 마치 급작스럽게 모두 소진돼버린 연료처럼 슬럼프에 빠져 무기력해진 상태를 지칭하는 증상이다.

마음의 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심리 상태의 기저에는 늘 불안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감정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시작한다.

몹은 편해졌어도 끝을 알 수 없는 경쟁 구도가 가져오는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래저래 불안에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현대인의 숙명인 듯하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매력적으로 표현해낸 화가, 에곤 쉴레

불안의 감정을 잘 드러낸 화가로는 에곤 쉴레만 한 작가가 없다. 작품 활동을 하며 100여 점에 넘는 자화상을 남긴 그는 렘브란트와 같은 자화상에 대가를 못지않은 화가이다.

독특한 드로잉 선이 살아있는 그의 작품을 보면 오묘한 느낌이 드는데, 이 묘한 끌림이 바로 그의 작품에서 시선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 하겠다. 특히나 대가인 클림트에게서는 드로잉 실력이 자신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 그가 가진 매력이란 정도였지 기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스물여덟에 요절한 그에게는 천재라는 수식어가 늘 따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비극적이고 신경증적인 화가'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밝은 이미지보다는 어둡거나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가 읽혀지는 것이 많다.

첨부된 '파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에서도 그의 불안한 감정은 여전하다. 작품을 보면 독특한 필체로 묘사된 쉴레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드로잉 이외에도 그의 얼굴을 가득 채운 감성 있는 색채가 한몫을 해내고 있다.

게다가 어두운 머리칼과 셔츠 색에 대비되는 뒷배경 속 파리의 붉은 색감은 흰색 배경과 어우러져 장식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아르누보 계열이었던 그의 작품 스타일도 잘 보여주고 있다.

쉴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세기말 현상과 전례가 가져온 불안한 시대 감성이 담긴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다.



에곤 쉴레 작 '파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위키피디아 검색>

1차대전이 가져온 거대한 공포는 가히 세기말과 흡사했고, 허무함과 불안은 사람들을 하나, 둘 집어삼키기에 바빴다. 결혼 3일 만에 징집돼 전쟁에 소집됐던 그는 아주 잠깐의 빛을 보다가 안타깝게도 스페인 독감에 아내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야 했다.

Tell me your secret!— 당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레 파도처럼 불안이 몰아칠 때면 어찌할 방법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럴 때 독자들은 어떤 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꽃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오만가지 생각을 잠시나마 멈춰 줄 수 있는 하나의 묘약이라고나 할까? 거기다 주는 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에 꽃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 게다가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여기에 기분 좋은 향기는 덤이다. 봄이라 요즘 벚꽃이 한창이다.



빈센트 반 고흐 작 '유리잔 속 꽃이 핀 아몬드 가지'

<위키피디아 검색>

고흐의 아몬드나무 작품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꽃이 핀 아몬드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유리잔 속에 담은 화가의 다른 작품을 보니 붐 기운이 새삼 느껴지는 듯하다.

일반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면을 쓴 채 웃으며 감정을 속이려고 한다.

하지만 감정은 참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미하더라도 해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금씩 털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소진된 자아를 찾아가는 위안의 여정을 보여주는 유소연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조금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동화적인 스토리와 화풍을 보여주는 작가 작품에 등장하는 당나귀 캐릭터가 독특하다. 자신의 성을 따 이름 지은 '유동기'는 그녀의 분신이자 대리인이다.

늘 불안함이 동반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속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안과 치유의 시간이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화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었다.

열심히 일상을 살아내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



유소연 작 '비밀이야기'

고 있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불안, 그로 인해 몸은 쉬고 있지 만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 그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근해대는 아이러니한 상황들까지...

이런 모습은 흡사 주인에게 채찍을 맞으며 영문도 모른 채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 하염없이 걷던 동화 속 당나귀의 모습과도 같았다.

독자들에게는 모든 가면과 위선을 벗어 던진 채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내비칠 이가 존재하는가? 작가에게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바로 위안의 시간이라고 했다.

'비밀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작가의 작품에서 보듯 그녀의 분신인 유동기와 또 한 마리의 당나귀가 물속에 다리를 담근 채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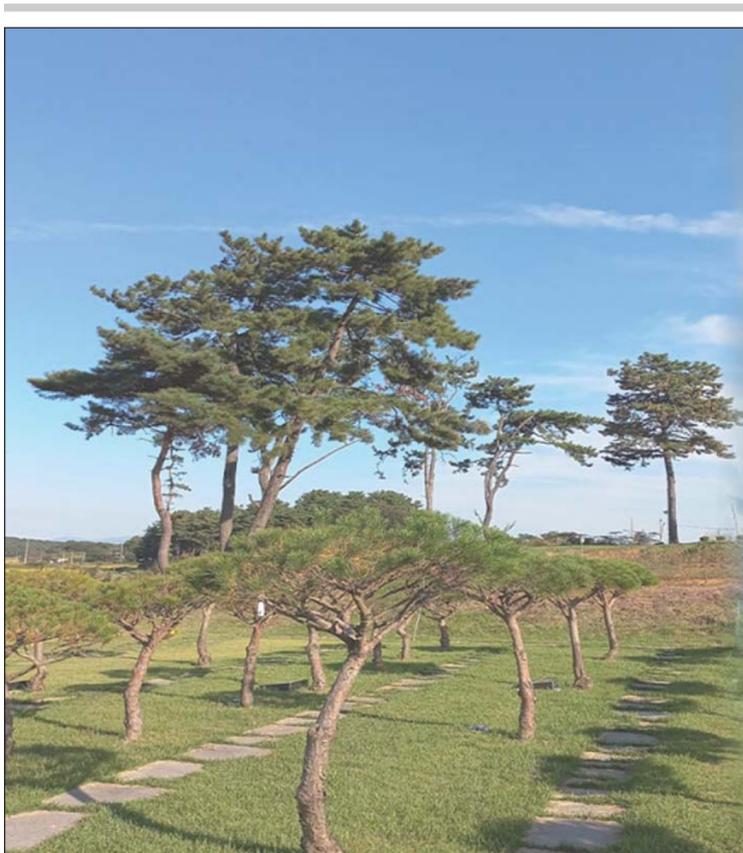
그 시간은 맘처럼 쉽게 존재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어보고자 작가는 그 시간을 '13월의 어느 날'이라 이름지었다. 그리고 관람객 또한 그림을 보며 잠시나마 위안과 쉼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작품에 함께 담았다.

작가가 꿈꾸는 13월의 어느 날...

독자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이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소중함들은 늘 다독거리려 지켜내야 한다는 삶의 지혜도 함께 깨달아 가고 있는지도 말이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예쁜 봄날, 소중한 이에게 꽃 한송이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맺는다. <이현남·전남대강사>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

